‘2026목포항구축제’ 언론 보도 설명 자료

10월 19일자 뉴스클레임 「목포항구축제 폭우속 폐막…비오고 찬 바람 부는데 ‘어린이풀장’」 의 기사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 2026 목포항구축제 개요

○ 축 제 명 : 2026 목포항구축제
○ 축제기간 : 2026. 10. 16.(금) ~ 10. 18.(일) / 3일간
○ 장 소 :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
○ 사 업 비 : 750백만원(도 10, 시 740)
○ 주최/주관 : 목포시/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

2 기사 내용 및 팩트

① 계절에 맞지 않는 어린이 풀장까지 설치됐지만 이용객은 보이지 않았다.

< 사 실 관 계 >

⇒ 해당 시설은 어린이 ‘맨손새우잡기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. 축제 기간 3일간 총 12회 운영하였으며, 매회 참가 접수가 단시간 내 마감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음.

⇒ 또한 가을철 기온을 고려하여 방수 고무슈트를 준비하고, 어린이들이 체험 중 추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.





맨손새우잡기 체험 프로그램

② 기상청의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목포시 관광과의 대비는 전무. 주무대 객석에는 따가운 햇볕을 막아줄 그늘막도, 쏟아지는 비를 피할 대형 천막도 없었다.

< 사 실 관 계 >

⇒ 주무대 객석에는 20m*25m 크기의 대형 그늘막을 설치하였음

⇒ 3일차인 10.18일 강풍에 예상되어 2일차 운영시간 종료 후 그늘막을 제거함.

⇒ 3일차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풍이 계속되었고, 강풍 이후 비가 내려 그늘막을 재 설치 할 수 없었음

③ 행사장 내 넓은 유휴 부지가 있었음에도 음식 부스를 턱없이 적게 배치하는 바람에, 허기진 관광객들은 특정 시간대에 음식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번호표를 쥔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.

< 사 실 관 계 >

⇒ 먹거리 부스는 총 16개소를 운영함. 어부의 밥상 3개소, 파시장터 3개소, 푸드트럭 10개소를 운영함

⇒ 주무대가 설치된 한국섬진흥원 유휴부지에 음식부스를 추가 배치할 경우, 콘서트 관람객과 음식 구매 대기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어 밀집도가 높아지고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음.

⇒ 음식부스의 위치는 수도 배관·전기 간선 설치 여건, 취식공간 확보, 관람객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위치에 조성한 것임.

④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입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.

< 사 실 관 계 >

⇒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은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, 공무원·학계·전문가 등 위원 구성 및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였음.

⇒ 평가위원은 입찰 참가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8명을 선정하였으며, 추첨 선정 과정에는 시 감사실 직원과 경찰서 관계자 1명의 입회하에 추첨 절차를 진행하였음.

⑤ 대행업체 선정 내역과 심사위원 명단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 청구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며 ‘밀실행정’을 자초.

< 사 실 관 계 >

⇒ 보도기자와 첫 통화는 보도일 당일 오전이며, 1차례 통화 후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메일로 요청했으며, 항구축제관련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고 요구자료가 많아 당장은 어렵다고 안내.

⇒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 점수는 공고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음.

⑥ 2025년 총 8억9200만원(국비 3200만원, 도비 5000만원, 관광거점지원금 4억, 시비 4.1억원)이었던 축제 예산 중 순수 시비 투입액이 불과 1년 만에 4억원에서 7억 4000만원(관광과 예산)으로 무려 85%나 급증. 국·도비 매칭이 크게 줄었음에도 시 재정 부담을 대폭늘려가며 축제를 강행

< 사 실 관 계 >

⇒ 관광거점예산이 반영되기 전 2019~2020년도 항구예산은 순수 시비 7억여원 수준이였으며,

⇒ 관광거점예산이 반영된 2022~2025년도에는 국도비 매칭 비율(5:2:3)에 따라 평균 9억여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, 이중 시비 부담분은 2억 4천만원 수준으로 사업비 총액 중 30%에 해당함

⇒ 관광거점예산 지원이 종료된 금년(2026년)은 관광거점예산이 지원되기 전 수준에 물가인상분, 안전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순수 시비 7억 5천만원 수준으로 편성함

⑦ “시 산하 단체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강제 동원된 주민들만 가득한 반쪽짜리 동네 잔치”라는 혹평이 쏟아졌다.

< 사 실 관 계 >

⇒ 시 산하 단체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음